

연중 제32주일

제 1 독서 : 2 마카7, 1-2.9-14

제 2 독서 : 2 데살2, 16-3, 5

복 음 : 루가 20, 27-38

# 순정이

“주님께서는 진실한 분이시며  
여러분을 강하게 해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2 데살 3, 3).

## 강론

### “부활하신 그리스도처럼 변모될 그리스도인”

유영도 신부 / 광주 가톨릭대학

인간은 죽을 존재요, 또한 죽지 않을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러나 죽음은 인생의 끝장이나 삶의 종말이 아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원조의 결과인 죽음이 부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극복될 것이며, 영육의 단일체인 전인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임을 고백하고 있다. 이러한 부활 신앙은 기원 전 2세기경부터 다니엘서와 마카베오 후서를 통하여 분명히 계시되기 시작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교 신앙의 기본적 진리가 되었다.

오늘 복음에서 모세오경만을 경전으로 인정하면서 부활을 부정하던 사두가이들은 부활 신앙을 조롱하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다. 신명 25, 5-6의 모세율법에 따라서 아들 없이 죽은 형의 대를 이어주기 위하여 형수와 결혼한 7형제가 있었다면, 부활할 때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는 질문이다. 이러한 사두가이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서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사악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출애 3, 6)은 죽은 망령들을 거느리시는 처량한 하느님이 아니라,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시는 전능하시고 전전하신 하느님이시며, 이러한 하느님의 전능과 전전에 의해 부활한 사람들은 장가들고 시집가는 현세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이러한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입증되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다.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현세의 인간적 차원과는 전혀 다른 신적 차원의 삶을 누리고 계신다. 우리 역시 부활하여 예수님처럼 하느님의 영광과 하느님의 능력과 하느님의 광채로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처럼 부활은 단순히 죽었던 육체적 생명의 회복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존재론적 변모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실하게 추종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럽게 부활하여 영육이 합일된 전인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모될 부활을 신앙하면서 그 신앙에 일치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 소리

### “토끼와 거북이”

지난달이 다 끝날 무렵 정부가 올해 추곡수매방안을 발표한지 사흘만에 고창지역 농민들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곡수매가와 수매량에 반대하는 벼 야적시위를 시작했다. 이같은 농민시위는 앞으로 도내는 물론 전남과 충청도 등 타도로 계속 번져나갈 기세인데다 벼를 불태우기까지 했던 지난해보다 더욱 거센 수매가인상 전량수매운동이 전국농촌을 휩쓸 것 같다.

정부의 추곡수매정책에 대한 반대시위의 규모가 해마다 확산되고 그 열기가 더욱 뜨거워지는 것은 농민들의 불만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영농비는 갈수록 토끼뎀으로 상승되는데도 쌀값은 매양 거북이 걸음이다. 값은 고하간에 희망량이라도 모두 사달라는데 농민들의 간절한 바람이건만 예산도 없고 창고도 모자란다는 메아리 뿐이다. 그래 저래 농가빚은 해마다 늘어나고 농군들은 건디다 못해 날품팔이를 하러 도시로 떠나 농촌은 더욱 피폐해 간다. 20년전 2백40만이던 농도 전북의 인구가 지금은 2백만으로 40만이나 줄어들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농촌이 공동(空洞)으로 변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서지 않을까 두렵기조차 하다.

농촌은 우리 삶의 뿌리다. 뿌리가 성치 못하면 가지와 잎이 건디어 낼 수 없을 것이다. 그러기에 농촌이 더이상 황폐해지도록 방관하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를 부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정부는 예산타령, 창고타령만 할게 아니라 농민들의 처절한 외침에 귀기울여 수매가 인상폭을 높이고 수매량도 대폭 확대하라. 뜻이 있으면 길도 있을 터이다. [인]

### 순정이 산책



성서교실 17

“내가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둘터이니, ...  
계약의 표가 될 것이다” (창세기 9장)

하느님은 노아의 번제를 받으시고, 노아와 그의 아들들  
에게 축복과 약속을 내려주시며 계약을 맺으신다.

하느님의 축복이란 생명의 번성을 위한 것이다. 하느님은  
이제 채소와 곡식뿐 아니라 동물까지도 인간에게 양식으로  
내어주신다. 물론 여기서도 에덴에서의 첫인간들에게 내  
려진 것처럼 지켜야 할 안전수칙이 있다. 그것은 홍수의  
직접적인 원인이 폭력에 있었던 만큼, 인간은 어떠한 경  
우든 짐승이나 자기 동료에게 폭력을 써서는 안된다는 것  
이다. 피는 피를 부르는 법,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보는  
일은 절대로 저지르지 말라는 것이다. 특히 하느님의 모  
습으로 창조된 인간의 생명을 해치는 자는 반드시 피를  
보리라는 말씀이 강조되고 있다.

하느님은 축복과 약속의 말씀에 이어 일방적으로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계약을 맺으신다.

말하자면 하느님은 이제 다시는 홍수로 인류를 대량 학  
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 대목을 핵전  
쟁으로 인한 지구의 종말을 예견하고 최후심판은 불의 심  
판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느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에서 이런 생각을 이끌어내는 것은 무리다. “다시는  
홍수로 땅을 멸하지 않으리라.”는 말씀은 노아의 번제를  
받으시면서 혼자 하신 “살아 있는 모든 것을 없애버리지  
않으시리라.”는 하느님의 말씀을 재확인해 주는 것이다.  
곧 물로든 불로든 다시는 전혀런 온갖 산 것들을 멸하지  
않겠다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나도 폭력을 쓰지 않겠으니  
너희도 폭력에서 손을 떼라는 초대이기도 하다.

계약의 내용은 하느님의 구원의지를 일방적으로 전달하  
는데 그 증거로 무지개를 내세우신다. 비 온 뒤에 구름  
사이에 나타나는 무지개를 증거로 내세우심으로 비와 연  
결된 대참사를 생각하시고 하느님은 몇 번이고 반복하여  
“홍수로 다시는 숨쉬는 모든 것을 멸하지 않으리라.”고  
다짐하실 것임에 틀림없다. 한편 인간은 비 온 뒤에 아름  
다운 무지개로 하느님의 여리고 고운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어지는 노아와 세 아들들의 이야기는 홍수 이후 인류의  
축보를 말하고, 이 이야기는 성조사기에 있어서 핵심적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선 모습

주제의 하나인 선택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하루는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별거벗은 채 천막 안에서  
잠이 든 것을 보고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의 치부를 가리  
기보다는 형 셈과 아우 야벳에게 가서 얘기한다. 이에 셈과  
야벳은 얼굴을 돌린 채 아버지의 몸을 덮어드린다. 노아는  
술이 깬 후 이 사실을 알고 함에게는 저주를 셈과 야벳에  
게는 축복을 내려준다. 말하자면 다윗과 솔로몬왕 시절에  
가나안 사람(함족)들을 종처럼 부린 상황을 기원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민족의 분포도로 보아 함족은 이집트를, 셈족은 팔레스  
티나와 메소포타미아 지방, 야벳은 소아시아와 그리이스를  
차지한다. 가나안족을 함족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스라  
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당시 이 일대가 함족의 근거지인  
이집트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다.



치질 전문 치료  
**서울 의원**  
레이저로 치질 무통 수술,  
수술 후 무통으로 활동 가능  
전주시 덕진동 덕진광장 앞  
원장 이 상 재(베네딕도)  
☎ 75-0550

**연지 화장품**  
최 선 남(모니카)  
관동로 사거리 민중서관 앞  
☎ 85-2880

**샤넬안경원**  
이 순 구(도미니코)  
정 병 채(실비아)  
☎ 54-9525  
이리역 원광대 버스  
승·하차장 앞

**남문회관**  
이 금 용(다 두)  
이 명 숙(마리아)  
구 성모병원 옆 팔달로  
☎ 231-2578

# 잡 관

## 100주년 기념 고산 새성전 기공식을 다녀와서

본당 설립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새성전 건립을 위한 미사와 기공식이 지난 10월 30일 고산성당 앞뜰에서 있었다. 한국에서 두번째로 세워진 퇴재(升峙) 성당으로부터 비롯된 오랜 신앙의 역사를 간직한 고산 성당이 낡고 비좁은 성당 건물을 헐고 건평 400여평 규모로 성당과 부속시설을 건립키 위한 그 첫 삽질을 시작한 것이다. 낡고 허물어져가는 성전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지어야 한다는 신자들의 뜻이 모아지면서 개개인이 적금을 들어온지 5년여 세월... 그동안 손수 경작한 농산물을 서울 세종로 성당 등 5곳에 직거래를 해왔고, 지역 특산물인 버섯, 약초, 감잎차 등을 판매하여 이미 1억여원의 재원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내년(93년) 3월, 신자들의 적금이 만기되면 총 3억여원이 된다. 농촌이 어려운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지만 이상하리만큼 고산성당은 70년대 이후 신앙인으로서, 농민으로서 긍지를 갖고 뚝뚝 뭉치며 농민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전국에 이름을 날려 왔다.

이제 그들은 또 하나의 역사를 이루려고 한다. 총 8억원의 공사비에는 아직 못미치지만 94년 11월에 있을 본당설립 100주년 기념행사 전인 94년 6월 완공을 목표로 힘찬 행보를 시작한 것이다.

“도시 본당에서도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할려고 하느냐?”는 질문에 본당신부와 사목회장은 “신자들이 하나님 안에 뚝뚝 뭉쳐 있고 뚝뚝지 할려고 하기 때문에 걱정 없습니다.”고 대답한다. 나는 신부님과 회장님의 말을 듣고 신자들의 의지와 용기, 아름다움에 감탄했다.

이 얼마나 장한 일이나? 우리 모두 그들의 일치와 사랑, 신앙과 용기에 힘찬 박수를 보내자. 그리고 성전건립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성원을 아끼지 말자!

연락처: 고산성당. 전화 사제관: (0652)73-4019, 사무실: (0652)71-4171  
온라인 번호: 우체국: 400366-0015846-11, 농 협: 501109-51-003053

### 교 구 소 식

※ 성전 기금 마련 조정오 신부 동양화전: 11월13일-17일 학생회관 전시실.

1. 사제 총회: 11월10일(화) 오전10시30분 나바위 대건교육관.
2. 문규현 신부와 구속방북인사를 위한 기도회: 11월9일(월) 오후7시30분 가톨릭센터.
3. 가톨릭 방송인회 모임: 11월9일(월) 오후7시 교구청 별관 흥보국.
4. 가톨릭 사진가회 사진전시회: 11월21일-25일 가톨릭센터 3층.
5. 중·고 교리교사 성탄 연수: 11월14일-15일 나바위 대건교육관.
6. 역사, 철학과 신학과의 관계 및 성아오스딩 사상 세미나: 11월14일(토) 오후2시 가톨릭센터 3층 강당, 강사-이규하 교수(역사 철학), 주관-전복대 가톨릭 교수회.
7. 성빈첸시오 아 바울로 전복 이사회 피점: 11월14일-15일 천호 피점의 집. 대상-교구 임원 및 각 협의회장·회원, 버스-가톨릭센터 12시50분 집결.
8. 선종하신 한국 J·O·C. 지도신부·선배·전미카엘 신부를 위한 추모미사 및 모임: 11월15일 오전11시 대전 진잠 공소, 출발-시청 뒤 오전9시30분.

엄마들을 위한 영화상영: 11월16일(월) 오후3시 교구청별관 1층, 제목-천국의 사도  
축! 영명: 10일(성례오) 박종충 신부님.

### 자연과 인간의 평화를 위하여

#### 핵 발전소

바닷물을 오염시키고 주변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는 핵 발전소의 건설을 반대합니다. 어떠한 경제적, 발전적 이유도 환경을 보전하는 것보다 중요할 수 없습니다.

#### 성지순례

스위스/로마/바티칸/이스라엘/스페인/산세스바찬/루르드/파리<14박15일>  
출발: 93년1월4일  
회비: 2,600,000원  
인솔신부: 서용복(도마)  
접수처: 이리 54-2202  
전주 88-6666

#### 엑스포 커텐


브라인트·커텐  
김 정 기(폴로리아니오)  
소 미 자(디나)  
영동동 신일아파트 송죽알로에 옆  
☎ (0653)858-1298

#### 하이패션-리블리 하이캐주얼-오닷컴이

정 성 희(세실리아)  
성락프라자 2층 68호  
☎ 71-5509

#### 요심이 (1005) 김병오


이상하게도 때 맞추어 잘 잡는 단말이야..

앞으로 선거를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선거때만 되면 간첩을 잘 잡으니까요..



#### 사무장 구함

성실하 봉사할 일꾼을 찾습니다.  
구비서류: 이력서 1통  
본당신부 추천서 1통  
연락처: (0658) 44-0151  
44-0152  
천주교 요촌 교회

#### 93년도 성심유치원 원아 모집

• 3년반-30명 • 1년반-30명  
원서 교부 일자: 92.12.1(화)  
원서 접수 일자: 92.12.5(토)  
문의 84-8347  
전동 성당 성심유치원

#### 제일공예사

각종 최고급상 제작, 칠순, 회갑, 결혼 답례품 주문 생산  
이 윤 백(바오로)  
왕 정 순(루시아)  
남원시 월락동 415  
☎ (0671) 625-7873

#### 축! 개장 코코 미용타운

• 웨딩드레스 대여 } 전문  
• 신부화장 }  
• 피부관리 }  
김 강 희(그라시아)  
군산 중앙로 국도극장 입구  
☎ 445-3241

# ☐ 남전주지구 본당소식 ☐

**\* 노송동** 본당신부 82-9663 사제관 82-9663 주임신부 박 진 랑  
수녀원 82-9662 사무실 82-9661 사목회장 김 동 주

**※ 연중 제32주일.**

1. 가정방문안내: 11일-중노23반, 13일-중노24반 오후2시부터.
2. 중·고교리교사 성탄연수: 14~15일 나바위. 부녀회 단합대회-12일(목) 3. 모임: ①꾸리아(오늘, 천사의모후-장엄미사 후 지하성당, 자비의모후-후2시 지하교리실) ②부녀회(10일 어머니미사 후) ③대전회(15일 장엄미사 후) 4. 다음주일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2차헌금 있음. 5. 사목회: 각 부장님들은 93년도 예산안을 22일까지 제출바랍니다. 6. 지금부터 성사보시는 분은 사무실에서 판공성사표를 가지고 보아주십시오. 7. 금주 성당참소: 중노21, 22반, 태주청소: 중노23, 24반.

☐ 지난주 봉헌금: 766,390원 ☐ 교무금: 1,093,000원

**\* 복자** 사제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김 병 환  
수녀원 86-3454 사목회장이 상 인

1. 성당보수공사 헌금: 구세주의 모친(60만원), 부녀회(20만원), 송절레, 박병무(각10만원), 강명진, 익명, 김영환, 정정자, 조점례, 신정순, 유순자, 김판근(각5만원), 강정자(3만원), 고종숙, 임황경(각2만원), 정기순, 안석권, 탁덕동(각1만원).
2. 구역미사: 10일 다가2반(후8시), 11일 다가5반(후3시) 11일 다가4반(후8시), 12일 태평1반(후8시), 태평5반(후8시).
3. 연도대회: 14일(토) 저녁미사 후.
4. 회합: ①요셉회(공식미사 후) ②꾸리아(오후2시) ③청년회(저녁미사 후) ④안나회(12일 오전10시) ⑤여성분과회(14일 오전10시) ⑥성우회(15일 공식미사 후)
5. 평신도 주일2차헌금(15일)  
처주전례: 유복규, 독서-이승열씨 부부, 봉헌-이현기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545,320원 ☐ 교무금: 1,008,710원

**\* 상관** 사제관 82-5079 주임신부 이 수 현  
사무실 82-5434 사목회장 한 동 육

**※ 오늘은 연중 제32주일.**

1. 청년회: 다음주 공식미사 후, 2. 평신도 주일: 다음주 2차헌금 있음.
3. 수녀원 신속헌금: 금주봉헌-60만원, 총액-3,534만원.
4. 성서읽기: 율기21장~30장, 5. 금주청소: 모든성인의 모후Pr.
6. 금주전례: 해설-최원규, 독서①양대환 ②이춘봉  
봉헌-김한철, 이수복씨 부부,  
처주전례: 해설-이미숙, 독서①박귀철 ②김연순  
봉헌-남창덕, 강순용씨 부부.

☐ 지난주 봉헌금: 266,010원 ☐ 교무금: 53,000원

**\* 서학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서 석 기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김 명 응

**※ 연중제32주일 ! 11월은 위령 성월(다음주일 평신도의 날 2차헌금 있음)**

1. 회의: ①재속프란치스코회-11월8일(오늘)오후2시  
②성심회-11월13일(금)오후2시  
③성모회-다음주일공식미사 후.
2. 모임: ①울뜨레아-11월11일(수)저녁미사 후②전례부-11월19일(목)오후8시(전원 참석바랍니다)
3. 알릴: ①봉성제-11월18일(수)  
②교무금 미납하신분은 속히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 혼인: 신랑-신화봉(아오스당) 신부-은수경(마리아)  
11월15일(일) 12시.

☐ 지난주 봉헌금: 723,650원 ☐ 교무금: 524,000원

**\* 용머리** 사제관 88-3872 사무실 87-0441 주임신부 조 점 오  
수녀원 81-0441 사목회장 오 직 환

**※ 성전 건립기금 마련**

신부님 동양화전(11월13~17일): 모든 신자분들을 초대합니다.  
(11월13일(금) 오후3시=개막식 학생회관 전시실.)  
= 전시기간 동안 특별한 관심과 방문으로 형제적 사랑을 나누시다. =  
1. 오늘 공식미사 후: 울뜨레아.  
2. 청소 봉사: 5구역 1반, 2반.  
☐ 지난주 봉헌금: 668,200원 ☐ 교무금: 655,000원

**\* 전동** 사제관 본당 81-0098 보좌 82-7245 주임신부 김 봉 회  
사무실 84-3222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정 삼 권  
유치원 84-8347 FAX 82-6232 사목회장이 영 태

**※ 11월은 위령 성월입니다.**

1. 금주: ①돈보교교회 성지순례(해미) ②자모회(전10시) ③일치의 모후Cu(후2시) ④사목회(후8시)
2. 구역반장회의: 12일(목) 전11시.
3. 구역반장 단합대회: 14일(토)
4. 유아세례: 14일 후3시-사무실에 미리 신청바람.
5. 중·고교리교사 성탄연수: 14일~15일, 나바위 교육관.
6. 감사합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대금-김홍식(다니엘) 서정희(세실리아)-일백만원.
7. 치주: ①평신도 주일(2차헌금 있음) ②바느의 성모Cu(후2시) ③청년연합회 월례회(저녁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1,812,410원 ☐ 교무금: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사무실 83-8245 주임신부 이 재 후  
FAX 82-6686 수녀원 87-0229 사목회장이 완 규

- ※ 다음주일은 평신도주일 2차헌금이 있습니다.  
1. 전국 교도사목 지도자 피집: 11일~12일, 후원회원과 함께.  
2. 빈첸시오 단합대회: 14일 전10시30분 제1회의실.  
3. 중고등부 성탄연수: 14일-15일 나바위 성당 대전회관.  
4. 가정방문: 13일 전9시-9구역1반 101동.  
5. 회의: 자모회 총회-11일 어머니미사 후, 제대회 총회-13일 미사 후3시, 북사단 총회-14일 후4시30분 거마정에서, 청년회 총회-15일(일) 오후8시.  
6. 초·중·고 백일장 사생대회 및 교리경시대회 입상자: 중고교 리경시대회-최근(모니카), 초등생 백일장대회-입선: 유하나(3년), 신진미(5년), 사생대회-최선: 오민택(3년), 입선: 최어진(유치부), 유미방(유치부), 최창환(2년), 한송이(2년), 최윤선(5년) ☐ 지난주 봉헌금: 960,430원 ☐ 교무금: 785,000원
7. 축! 혼배: 신랑-최 훈(요한), 신부-모은영, 오늘 12시미사.

**\* 화산동** 사제관 221-9843 주임신부 서 석 구  
사무실 221-9842 사목회장 한 병 갑

1. 성모회: 오늘 미사 후.
2. 자모회: 다음주일 미사 후.
3. 예비자교리반 안내: 매주 목요일 오후8시(성당)
4. 성가연습: 여성-목요일 오전10시30분.  
남성-화요일 오후8시.  
금주전례: 정 결, 봉헌: 김희숙, 최중오.  
처주전례: 이완자, 독서: 봉헌: 양희숙, 황준우.

**\* 효자동** 본당 223-3824 사무실 223-3821 주임신부 김 치 삼  
보좌 223-3823 수녀원 223-3822 보좌신부 서 석 회  
FAX 223-3821 사목회장이 동 섭

**※ 오늘은 연중 제32주일**

- 모임안내
1. 성모회: 11일(수) 11시.
  2. 자모회: 18일 다음주 수요일 10:30.
  3. 꼬미시울: 21일(다음주 토요일) 오후3시.  
※ 11월은 교무금 납부의 달입니다. 미납자는 확인하시고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사안내: 금주-즐거움의 연유, 은총의 모후  
처주-승리의 여왕, 황금의 궁전.
- ☐ 지난주 봉헌금: 1,175,830원 ☐ 교무금: 1,542,000원

**\* 효자우전** 사제관 221-3712 사무실 221-3711 주임신부 김 순 태  
수녀원 223-0715 사목회장 엄 의 도

1. 모임안내: ①울뜨레아-공식미사 후  
②빈첸시오회-9(월) 오전10시  
③자모, 성모, 성심회-13(금) 10시미사 후.
  2. 판공성사: 10(화)저녁7:30우전1,2반, 11(수)저녁 사거리, 12(목)저녁 현대1,2반, 13(금)저녁 현대3,4반.
  3. 가정방문: 판공성사 보는날 오후 가정방문이 있으니 각 구역장님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주판공성사-현대5,6반, 남양, 한성, 태하, 광전1,2반.  
신속헌금봉헌액-290,000원  
금주전례: 해설-임창수, 독서-①문병식 ②윤규임  
봉헌-안내-황근용 부부, 김홍대 부부,  
처주전례: 해설-김광년, 독서-①최승기 ②김성보  
봉헌-안내-심화섭 부부, 박동욱 부부.
- ☐ 지난주 봉헌금: 1,117,050원 ☐ 교무금: 1,932,000원

※ 성전기금마련 조정오신부님 동양화전: 일시-11월13일~17일 장소-학생회관 전시실